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6, Vol. 18, No. 1, 177-199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서 영 석† 이 정 림 차 주 환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가정된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진행되었다. 전국 4개 지역의 6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401명의 대학생들이 인구통계학적 설문지와 심리사회적 변인들(성역할태도, 가족가치관, 종교성향, 권위주의, 문화적 가치)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각각 평정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들의 경우 외현적 종교성향이 약하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고수할수록 동성애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엔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내현적 종교성향이 강할수록, 외현적 종교성향이 약할수록,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특정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모두의 지적, 개인적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동성애혐오,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문화적 가치

† 교신저자 : 서 영 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Tel : 02) 450-4189, E-mail : seox0004@konkuk.ac.kr

1970년대 초반에 발생한 두 사건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근대적인 연구의 길을 터주었다. 그 하나는 1972년에 동성애혐오(homophobia) 등의 개념을 소개한 Weinberg의 "사회와 건강한 이성애자(Society and the Healthy Homosexual)"라는 책이 출판된 것이고, 1973년에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를 DSM에서 제거한 것이 또 하나의 사건이다(Herek, 1994). 이 두 사건은 이성애 중심 사회가 동성애자들에게 부여해왔던 낙인(stigma)과 편견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강렬한 도전의 산물이며, 성적 경향(sexual orientation)이 정신병리와 무관하다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반영한다. 한편, 이 두 사건은 일반 사회인들과 과학 분야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한다: 동성애가 정신병이 아니라면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간주하였는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성애자들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간주해왔던 것은 아닐까?

동성애가 DSM에서 삭제된 이후에도 동성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편견은 일반인뿐 아니라 정신건강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듯하다. 특히,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강하거나 이해가 부족할 경우, 심리적 부적응의 원인을 동성애에 두고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자기정체성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며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킬 뿐이다(김은경, 권정혜, 2004). Weinberg의 책이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어왔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과 정신병리적인 관점들이 연구자들의 접근방식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Morin(1977)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이 이성애 우월주의(heterosexism)내지는 동성애혐오를 내포하고 동성애를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분류했다. 첫째, 동성애를 병리적인 조건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이며, 둘째는 동성애의 원인을 발견하려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는 것인데, 이것은 동성애를 치료하거나 방지하려는 목적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다. 셋째, 이성애자들과 비교해서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적응하는지를 알아보려는 연구 역시 이성애적인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다.

지난 수세기 동안 진행된 동성애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동성애 관련 연구들이 점차 줄어들고 동성애를 인간 성애의 정상적인 한 종류로 바라보는 경향이 확립된 것을 알 수 있다(Phillips, Ingram, Smith, & Mindes, 2003). 일례로 동성애의 원인과 진단에 대한 논문은 더 이상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부적응을 이성애자들의 그것과 비교한 논문 역시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Buhrke, Ben-Ezra, Herley, & Ruprecht., 1992).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문헌연구(Phillips et al., 2003) 결과를 보더라도 동성애와 관련해서 상담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동성애 혐오(38%), 동성애 정체성발달과 coming-out(31%), HIV/AIDS(29%),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26%),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적응(24%)인 것을 알 수 있다. 동성애혐오가 동성애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라는 사실은, 동성애자들을 정신병리적 증상을 지니고 있는 부적응자로 바라보던 관

점에서 벗어나 이성애 우월적인 환경이 동성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뀐 것을 반영한다(Waldo, 1999). 또한,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적응문제 역시, 동성애가 정신병리의 지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억압과 차별이 동성애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hillips et al., 2003).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경향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학대 및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고(Evans, 2001; Rankin, 2003),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립감을 느끼거나 위축되고, 자기혐오, 분노, 의심이라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김은경, 2001; Garnets, Herek, & Levy, 1992), 심한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Schneider, 1989). 이렇듯, 동성애자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아래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Meyer, 1995), 동성애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부적응의 문제를 완화하고 건강한 동성애 정체성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성애자들 특히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의 이해와 수용,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Cass, 1984).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동성애자들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부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혐오감과 편견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행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요인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이성애자들은 같은 성별의 동성애자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남성 이성애자들이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Cuenot & Fugita, 1982; Herek, 1988). 또한, 성역할, 전통적인 가족구조에 대한 믿음, 종교적 성향, 정치적 신념, 동성애자들과의 개인적 접촉의 정도 및 질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erek, 1988; Lance, 1987). 즉,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족의 개념을 고수하고, 종교적 신념이 강하거나 보수적인 종파에 속해 있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동성애자들과 개인적인 접촉경험이 적을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비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할수록, 종교가 없거나 자유주의적 기독교 종파에 소속되어 있을수록, 정치적으로 온건하거나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수록, 그리고 동성애자들과 긍정적인 대인경험이 있을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대부분 그들의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 및 부정적 반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Rhoads, 1995).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과 동성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요소,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학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Ficarrotto, 1990).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에 대처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

성애자들의 태도를 연구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러한 태도가 이성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고수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이성애자, 특히 남성들은 그러한 부정적 태도로 인해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e.g., Britton, 1990; Garnets, Herek, & Levy, 1990; Wells, 1991). 이렇듯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및 부정적 태도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연구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적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많은 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듯이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자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Evans, 2000; Evans & Rankin, 1998; Sanlo, 1998).

지금까지 한국의 정신건강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동성애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적응(백은정, 유영권, 2004)이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김은경, 권정혜, 2004) 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 및 관련 변인들과의 상호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동성애 관련 편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 변인들(성별, 성역할태도, 전통적 가족가치관, 권위주의, 동성애자들과의 접촉여부, 종교성향) 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가치 변인(자기구성개념)을 연구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성애자의 성별을 변인으로 채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e.g., Bosow & Johnson, 2000; Engstrom & Sedlacek, 1997; Gannon, 1999; Mohr & Sedlacek, 2000).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e.g., Klassen, Williams, & Levitt, 1989; Oliver & Hyde, 1993; Stevenson & Gajarsky, 1990). 이렇듯 성별이 미치는 영향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연구문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별에 따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를 구분하고 이성애자들의 성별에 따라 이들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우선 이성애자들의 성별에 따라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Herek, 1988, 1994; Hogan & Rentz, 1996; Mohr & Rochlen, 1999; Simoni, 1996)에 기인하며, 레즈비언과 게이가 이질적인 집단이고 이들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달리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언(Phillips et al., 2003)을 따른 것이다.

동성애혐오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변인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족구조에 대한 믿음이다. 대부분의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이 전통적인 남녀역할과 가족구조를 위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Herek, 1995), 전통적인 성역

할과 가족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권위주의가 또한 연구되어왔다(Altemeyer, 1996; Haddock & Zanna, 1998; Herek, 1988; Whitley, 1999). 권위주의적 성격이론(authoritarian personality theory)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지기가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 실제 관련성을 조사해 보았다.

동성애혐오와 관련된 또 다른 변인은 동성애자들과의 접촉경험이다. 기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동성애자들과 개인적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Herek, 1988; Herek & Capitanio, 1996; Herek & Glunt, 1993). 처음부터 동성애자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 동성애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Allport(1954)의 접촉이론(contact theory)에 따르면 접촉 그 자체가 편견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동성애자와의 접촉 경험을 연구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종교적 성향을 채택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Cotten-Huston & Waite, 2000; Herek, 1988). 한편,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성향을 내현적(intrinsic) 성향과 외현적(extrinsic) 성향으로 구분하여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내현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의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인 반면, 외현적 종교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대인적 친목 등의 도구적 목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박재연, 1993; Allport & Ross, 1967). 이러한 구분은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라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의 정도와 내용이 다르다는 Allport와 Ross(1967)의 제안을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동성애 관련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문화가치 변인을 본 연구의 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는 상담심리학계에서 점차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다문화적 경향과(Heppner, Casas, Carter, & Stone, 2000; Pedersen, 1991), 성적 경향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개념화해야 한다는 주장(Ponterotto, 1986)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동성애자들을 사회적 소수인 이방집단(out-group)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주장(Herek, 1988)에 근거하였다. 이 주장에 기초하면, 인간관계에서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철저히 구분하여 대하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이러한 문화가치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문화가치 변인을 통제한 후 기존의 관련 변인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함이

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이성애자들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n = 117), 경기도(n = 131), 경상도(n = 60), 전라도(n = 93) 지역에 소재한 6개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401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분포는 여학생 265명(67.1%), 남학생 129명(32.7%), 결측 1명(0.3%)이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19세부터 35세까지 분포하였다(M = 23.40, SD = 3.10).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묻는 설문지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재는 척도, 성역할태도 척도, 가족가치관 척도, 종교성향 척도, 권위주의 척도, 자기구성개념 척도가 사용되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 검사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Herek(1988)이 개발한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검사(Attitudes Towards Lesbians and Gay Men: ATLG)를 사용하였다. ATLG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개인적인 느낌을 측정하는데, 여성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ATL)과 남성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ATG)를 따로 구분해서 측정한다. 각 하위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점 척도(1점 = 매우 반대한다, 9점 =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는데, 10점(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부터 90점(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까지 분포한다.

원래의 ATLG는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서로 다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두 하위 척도에서 나온 점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Herek(1994)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게이에 대한 태도를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형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한 하위척도를 택해서 동일한 문항들로 다른 하위척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묻는 하위 척도를 선택한 후, 한 문항세트는 여성동성애자들을 또 다른 문항세트는 남성 동성애자들 각각 지칭하도록 제작한 후, 동일한 문항들로 두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평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ATLG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는 .90-.96, ATG는 .89-.92, ATL은 .77-.92인 것으로 보고되어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입증되었다(Herek, 1988, 1994).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ATLG가 .94, ATG .89, ATL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ATLG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일례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성애자들의 정치적인 행동 및 AIDS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견해를 예측함으로써 ATLG의 예언타당도가 입증되었다(Herek, 1988; Herek & Glunt,

1991, 1993a).

본 연구에서는 역번역과정을 거쳐 한국어판 ATLG를 제작하였는데, 우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중 언어 사용자가 영문 ATLG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이것을 또 다른 이중 언어 사용자가 다시 영어로 번역하였다. 원문 ATLG와 차이가 있는 문구들을 다시 수정하여 한국어판 ATLG를 제작하였다.

성역할태도척도

참여자들의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역할태도척도(Gender-Role Attitudes Scale: GRAS)를 사용하였다. GRAS는 정종희(1983)가 Sex-Role Orientation Scale(SRO)과 Sex-Role Ideology Scale(SRI)에서 선발한 문항들을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작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가 낮은 6문항을 제외한 15문항으로 구성된 김혜원과 김명소(1998)의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GRAS는 여성 및 남성의 가정역할, 여성의 직업역할, 일반적인 성 고정관념이라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성역할태도의 전통, 진보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1점 = 매우 반대, 5점 = 매우 찬성)로 평정하며, 점수의 범위는 15~7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에서 성역할태도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82로 나타났고(김혜원, 김명소, 1998),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는 여성 및 남성의 가정역할 .76, 여성의 직업역할 .81, 일반적인 성 고정관념 .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 시 성역할태도 총점을 사용하였다.

가족가치관척도

참여자들의 가족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하은아(2001)가 옥선화(1989)의 가족주의 척도를 참고하여 개발한 가족가치관척도(Tradition of Korean Familism and Its Transi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하은아(2001)는 전체 42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요인 부하량이 .40이하인 문항은 제외하고, 부계혈연의 배타적 가족요인, 가족우선성 요인, 가통의 계승 및 발전 요인 등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는 총 20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전통적 가족주의 문항들은 5점 척도(1점 = 절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20~10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에서의 전통적 가족주의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는 부계혈연의 배타적 가족 요인이 .85, 가족 우선성 요인 .80, 가통의 계승과 발전 요인 .67로 나타났다(하은아, 2001).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84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는 부계혈연의 배타적 가족 요인 .80, 가족 우선성 요인은 .70, 가통의 계승 및 발전 요인은 .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 시 가족가치관 총점을 사용하였다.

종교성향척도

연구 참여자들의 종교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Allport와 Ross(1967)가 개발한 내현적-외현적 종교성향 척도(Intrinsic religious and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sub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내현적 성향 8문항, 외현적 성향 11문항, 집단구분 1문항), 4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

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내현적 종교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종교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종교 안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발견하는 반면, 외현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종교를 외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종교를 통해 소속감, 보호, 사회적 지위, 자기정당화를 얻으려 한다(박재연, 1993; Allport & Ross, 1967).

이 척도를 사용한 국내 연구들(박재연, 1993; 심수명, 1993)은 점수에 따라 내현적 집단, 외현적 집단, 친종교적 집단, 비종교적 집단 등 4집단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정아(1993)의 분류방법을 사용하여 집단으로 나누지 않고 참여자들의 내현적 성향과 외현적 성향 점수를 모두 계산하여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전 연구들은 내현적 척도에 대한 Cronbach's alpha가 .76에서 .88사이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외현적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66에서 .74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심수명, 1993; 양정아, 1993; 이혜령, 2003).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향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가 .72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는 내현적 성향 .86, 외현적 성향 .80로 나타났다.

한국판 권위주의척도

참여자들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민경환(1989)이 개발한 한국판 권위주의척도(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권위주의척도는 Adorno와 그의 동료들(1950)이 제시한 9개의 권위주의 구성요인, 즉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 내성주의,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을 기초로 민경환(1989)이 제작한 척도이다. 총 35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들은 6점 척도(1점 = 절대 그렇지 않다, 6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35-21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의 권위주의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86이었고(민경환, 1989),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 시 권위주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자기구성개념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개인주의, 집단주의)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Singelis(1994)가 개발한 자기구성개념척도(Self-construal Scale: SCS)를 사용하였다. 자기구성개념(self-construal)은 타인과 관련해서 생기는 일련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들의 집합체로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을 타인과 얼마만큼 분리되어 있는지 혹은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지를 의미한다.

인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양 극단의 현상으로 간주한 다른 척도들과는 달리, SCS는 이 두 문화적 가치들이 한 개인 안에 병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SCS는 두 개의 하위척도, 즉 개인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독립적 자기구성개념척도(independent self-construal scale)와 집단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척도(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점 = 매우 반대, 7점 = 매우 찬성)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문화적 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SCS는

한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기법 인식에 관한 연구(Seo, 2002)에서 역번역 과정을 통해 번안되었고, 그 후 한국 대학생과 상담자들의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논문들(서영석, 2003; 서영석, 2005; 서영석, 안창일, 2003)에서 한국인들의 문화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30문항 중 우리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 문항("나는 다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연장자인 경우에도 그 사람의 이름(first name)을 부르는 것이 편하다")을 제외한 2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독립적 자기구성개념척도에 대한 Cronbach's alpha가 .67에서 .70사이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척도의 Cronbach's alpha는 .71에서 .74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석, 2003; 서영석, 2005; 서영석, 안창일, 2003; Singelis, 1994;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Yamada & Singelis, 1999).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독립적 자기구성개념척도 .76,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척도 .74로 나타났다. SCS는 다인종 간 비교와 집단주의적 의사전달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Singelis, 1994; Singelis & Brown, 1995).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5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되었는데, 서울,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소재한 6개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은 수업 중 진행되었으며, 강사가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학생들은 동성애 행위 가담 여부 및 가까운 사람 중에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이 있는지 등을 묻는 인구통계학적 설문지를 작성한 후 심리사회적 척도들에 반응하였다. 총 485개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401개(82.7%)의 완성된 설문지가 회수되었는데, 동성애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6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395개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상관분석

주요 연구문제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인 간 단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높은 상관을 보였고(r=.91), 여성 참여자들이 남성 참여자들에 비해 동성애자들에 대해 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r=-.18, r=-.21). 또한, 상자 안에 표기된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거나 외현적 종교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고수하고 내현적 종교성향과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가치관과 문화가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족가치관척도가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들(참여자 성별, 성

표 1. 변인 간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여동성애태도	-										
2. 남동성애태도	.91***	-									
3. 참여자 성별	-.18**	-.21**	-								
4. 동성애지인	-.12*	-.14**	.17**	-							
5. 성역할태도	.33***	.32***	-.48**	.05	-						
6. 가족가치관	.17	.15	-.39**	-.03	.70***	-					
7. 내현적종교	.25**	.22*	-.11*	-.02	.10	-.01	-				
8. 외현적종교	-.28***	-.21*	.28	-.05	.03	.11	-.18*	-			
9. 권위주의	.19*	.18*	-.10	.03	.47***	.55***	.02	.30***	-		
10. 독립적 자기	.14	.14	.01	-.01	.02	-.01	.11	.06	.14	-	
11. 상호의존적 자기	.15	.09	.01	-.09	.06	.19*	.01	.06	.20*	.41***	-

참조. 상관분석 시 여성과 동성애 지인이 있는 경우를 1로 부호화하였다.
*p < .05, **p < .01, ***p < .001.

역할태도, 권위주의,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고려되어 주요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동성애 태도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남자 동성애태도척도와 여자 동성애태도척도를 모두 평정하였기 때문에 참여자의 성별을 참여자간 변인으로, 동성애태도척도를 참여자내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변인들의 주효과뿐만 아니라 변인 간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

표 2. 참여자의 성별과 동성애태도척도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표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참여자내(동성애태도:A)	14.11	1	14.11	87.02***
참여자간(성별:B)	80.99	1	80.99	16.05***
A * B	.76	1	.758	4.68*
오차	1977.82	392	5.05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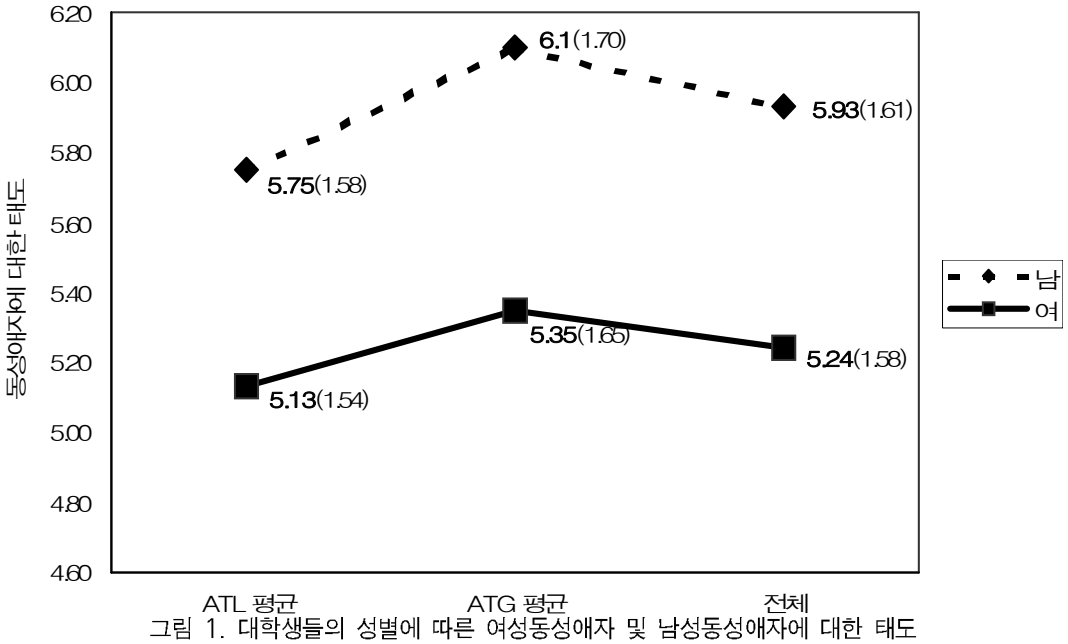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여성동성애자 및 남성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참조. 괄호 안에 제시된 수치들은 표준편차임.

과(그림 1 참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성애자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참여자들의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상호작용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대학생들의 경우 동성의 동성애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남자대학생들은 동성의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라 각각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여자 동성애태도척도와 남자 동성애태도척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r=.91)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는 두 척도를 합한 점수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인 가족가치관척도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동성애지인 여부 변인을 포함시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역할태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종교성향, 네 번째 단계에서는 권위주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문화가치 변인을 각각 포함시켰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다.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동성애 지인만이 포함된 1단계 회귀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회귀모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값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2단계(F=12.77, p<.01)와 3단계(F=7.41, p<.01) 회귀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4

표 3. 남자 대학생들의 동성애태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측 변인		표준화된 β 계수	t	R^2	F
1단계	동성애 지인	-.01	-.05	.00	.00
2단계	동성애 지인	-.02	-.23	.10	6.39**
	성역할태도	.31	3.57**		
3단계	동성애 지인	-.03	-.37	.20	7.24***
	성역할태도	.31	3.75***		
	내현적 종교	.16	1.93		
	외현적 종교	-.25	-2.95**		
4단계	동성애 지인	-.03	-.39	.22	6.30***
	성역할태도	.25	2.56*		
	내현적 종교	.15	1.89		
	외현적 종교	-.30	-3.28**		
	권위주의	.15	1.49		
5단계	동성애 지인	-.03	-.40	.23	4.75***
	성역할태도	.25	**2.63***		
	내현적 종교	.15	1.72		
	외현적 종교	-.30	**-3.31****		
	권위주의	.14	1.24		
	독립적 자기구성개념	.12	1.28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	-.02	-.16		

참조. 종교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참여자인 경우, 종교성향 척도를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p < .05$, $^{**}p < .01$, $^{***}p < .001$.

단계(F=2.22, p>.05)와 5단계(F=.89, p>.05)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예측변인들의 설명량 역시, 2단계와 3단계 회귀모델이 그 이전 모델보다 10%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했고, 4단계와 5단계 회귀모델의 추가 설명량은 각각 1%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외현적 종교성향·성역할태도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성애 지인·내현적 종교성향·권위주의·독립적 자기구성개념·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자 대학생들은 외현적 종교성향이 약할수록,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동성애 지인만이 포함된 1단계 회귀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회귀모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값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2단계(F=21.15, p<.001), 3단계(F=

표 4. 여자 대학생들의 동성애태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측 변인	표준화된 β 계수	t	R^2	F
1단계	동성애 지인	-.11	-1.83	.01	3.34
2단계	동성애 지인	-.11	-1.90	.09	12.38***
	성역할태도	.28	4.60***		
3단계	동성애 지인	-.11	-1.88	.19	14.56***
	성역할태도	.26	4.52***		
	내현적 종교	.27	4.54***		
	외현적 종교	-.12	-2.00*		
4단계	동성애 지인	-.09	-1.57	.27	18.65***
	성역할태도	.16	2.77**		
	내현적 종교	.27	4.79***		
	외현적 종교	-.18	-3.19**		
	권위주의	.32	5.35***		
5단계	동성애 지인	-.08	-1.45	.28	14.99***
	성역할태도	.15	**2.58***		
	내현적 종교	.28	**5.00*****		
	외현적 종교	-.18	**-3.11****		
	권위주의	.33	**5.53*****		
	독립적 자기구성개념	-.09	-1.58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	-.05	-.84		

$^{*}p < .05$, $^{**}p < .01$, $^{***}p < .001$.

15.34, $p<.001$), 4단계($F=28.62$, $p<.001$) 회귀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5단계($F=1.99$, $p>.05$)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예측변인들의 설명량 역시, 2단계, 3단계, 4단계 회귀모델이 그 이전 모델보다 약 8%, 10%, 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고, 5단계 회귀모델의 추가 설명량은 1%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권위주의·내현적 종교성향·외현적 종교성향·성역할태도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성애 지인·독립적 자기구성개념·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자 대학생들은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내현적 종교성향이 강할수록, 외현적 종교성향이 약할수록,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고수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에 비해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녀 모두 여성 동성애자보다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남자 대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외현적 종교성향과 성역할태도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권위주의·내현적 종교성향·외현적 종교성향·성역할태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차이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수행하는 심리적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Herek(1988)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수행하는 심리적 기능을 몇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이 중 하나가 가치 표현적(value-expressive) 기능이다. 이는 개인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인 개인의 가치들을 표현함으로써 자기의식을 확인하려는 욕구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가치 표현적 태도는 성역할이나 가족체계 혹은 종교와 같은 이념적 요인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권위주의, 종교성향 및 성역할과 같은 이념적 요인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여자 대학생들의 태도가 가치 표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과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발달한 인지적 도식을 기반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견지하는데, 이럴 경우 *경험적-도식(experiential-schematic)*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동성애자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참여자 중 대부분(32명, 91%)이 여성인 점을 고려한다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여자 대학생들의 태도가 가치 표현적 기능 이외에 경험적 도식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외현적 종교성향과 성역할태도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남자 대학생들의 태도가 가치 표현적 기능 뿐 아니라 *사회적 표현(social-expressive)* 기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표현 기능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타인들로부터의 수용이나 인정 등과 같은 대인적 욕구에 뿌리를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타인들의 지지 혹은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안전감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결국,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 대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사회적 표현의 기능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수행하는 심리적 기능을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각 변인의 심리적 속성을 기초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다. 우선, 종교적 성향이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남학생들의 경우 외현적 종교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엔 내현적 종교성향이 강하고 외현적 종교성

향이 약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이든 외현적이든 종교적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외국의 연구결과(Fisher, Derison, Polley, & Cadman, 1994; Kirkpatrick, 1994)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대부분의 대학생들(n = 192, 80%; 이중 여성이 64%)이 기독교(가톨릭교 포함)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내현적 종교성향이 강한 사람들(특히, 여학생들)은 교회 교리에 입각한 도덕적 판단의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 배치되는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외현적 종교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 특성상 종교를 갖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교리를 삶의 기본 지침으로 택하는 경향이 약하고 타인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지 않아(Herek, 1994),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 또한 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Altemeyer, 1996; Haddock & Zanna, 1998; Herek, 1988; Whitley, 1999)와 일치하는 것이다. 권위주의 성격이론에 따르면,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인간을 고유한 개인(unique individual)이나 보편적인 존재(general human being)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 통념적 집단구분에 따라 집단구성원들을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민경환, 1989). 특히,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따르고, 기득권에 복종하려 하고, 사회적 권위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과 같이 전통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기 마련이다(Altemeyer, 1996; Haddock & Zanna, 1998). 이러한 권위주의적 특징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와의 접촉여부에 따라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할 것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동성애자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다. 이전의 동성애 관련 연구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젊은 여성일수록 동성애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하였는데(Herek & Glunt, 1991, 1993a, 1993b), 본 연구에서도 동성애자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참여자 중 대부분(32명, 91%)이 여성인 점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해석 역시 하나의 가능성으로 고려한다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동성애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이 감소된다면,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동성애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적소수자인 동성

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수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개입전략, 예를 들어 성과 관련된 교과목 개설, 수업장면에서 동성애자들과의 상호교류, 동성애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인간의 성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한 후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Patton & Morrison, 1993, 1994), 수업장면에서 동성애자들과 직접 교류함으로써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과 불안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e.g., Green, Dixon, & Gold-Neil, 1993; Herek, 1984; Lance, 1987)는 동성애와 관련된 개입전략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문화가치 변인은 예상과는 달리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철저히 구분하는 집단주의적 문화가치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이성애자들이 취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대인 간 혹은 집단 간 갈등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자의 개인내적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동성애자들을 내집단에 속하지 않은 이방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성애혐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다른 성적 특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간주하기 때문에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권익 증진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서양에서는 개혁론자 패러다임(reformist paradigm)(Herek, 1988), 즉 동성애자들을 내집단에 속하지 않은 이방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성애혐오가 발생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집단적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한국적 현실에서는, 이러한 개혁론자 패러다임보다는 이성애자들의 개인적 수준에서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는 해석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애자들의 심리적 변인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 역시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ATLG가 동성애 및 동성애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측정할 뿐,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태도들을 평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Herek, 1994). 동성애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과 도덕적 판단은 동성애자들이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누려야하는 지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와 별개일 수 있다. 즉, 이성애자들이 도덕적 기준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받고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문화·사회적 적절성과 관련이 있다. 비록 연구자들이 ATLG를 번역·역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항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한국 이성애자들의 태도를 측정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사척도가 동성애와 관련된 우리 문화의 특수한 현실이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부족했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즉,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ATLG에 대한 보다 엄격한 타당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규준을 기초로 개발된 ATLG 문항들이 지닐 수 있는 문화적 이질성을 본 연구가 얼마나 극복

했는가라는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문화 가치를 평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기구성개념척도 역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그 제한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가 한 개인 내에 병존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만든 자기구성개념척도의 하위척도 간 상관이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는데(r=.41), 이는 하위척도 및 문항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타당성의 한계가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여러 대학에서 표집을 했지만 확률표집이 아닌 편의적 표집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참여자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학력, 연령, 경제수준 등이 다른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서양에서는 상담심리학이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소수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해왔는데(Fassinger, 2000; Phillips, Ingram, & Mindes, 2003), 같은 맥락에서 동성애 관련 연구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이 1970년대 이후 상담심리학계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상담심리학은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원 교과과정에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과정이 포함된 경우가 매우 드물고, 동성애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 또한 제한된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상담인력들이 동성애자들과의 상담조력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이성애 우월주의(heterosexism) 내지는 동성애혐오적인 태도를 탐색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동성애 내담자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 이로 인한 심리적 역기능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인력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확인과 수정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과정이 없다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이 상담과정의 진행을 저해하고 결국 효과적인 상담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에게 효과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대학원과정에 동성애 관련 과목을 포함한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태도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coming-out하는 동성애자들이 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과 편견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정체감 혼미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호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에 비해 상담의 수요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의 경우(Bradford, Ryan, & Rothblum, 1994; Liddle, 1999)가 반드시 한국적 상황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성애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주제에 걸쳐 과학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지각 및 선호도, 상담기법 및 효과 또한 가치 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삶의 다양성과 개인의 독특성 및 존엄성을 표방하는 상담의 기본 취지에 맞게 성적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해 편견 없는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상담심리학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신경정신의학, 41(5), 930-941.

김은경 (2001).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경, 권정혜 (200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69-981.

김혜원, 김명소 (1998). 취업이 기혼여성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35-50.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박재연 (1993). 종교성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백은정, 유영권 (2004). 기독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25-842.

서영석 (2003). 개인의 문화적 가치가 상담장면에서의 감정표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4(2), 329-345.

서영석 (2005). 내담자의 정서표현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비교 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35-351.

서영석, 안창일 (2003). 상담경험, 성격유형 및 문화가치에 대한 충실도가 상담기법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03-421.

심수명 (1993).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자아분화와 죄책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정아 (1993). 종교성향 및 태도와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옥선화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혜령 (2003). 종교성향과 강박적 성격특성이 사고-행동 융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종희 (1983).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하은아 (2002). 가족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가족개념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dorno, T. W., Frenkel-Bruns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Allport, G. W., &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osow, S. A., & Johnson, K. (2000). Predictors of homophobia in female college students. *Sex Roles, 42*, 391-414.

Bradford, J., Ryan, C., & Rothblum, E. D. (1994). National Lesbian Health Care Survey: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ca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228-242.

Britton, D. M. (1990). Homophobia and homosociality: An analysis of boundary maintenance. *Sociological Quarterly, 31*, 423-439.

Buhrke, R. A., Ben-Ezra, L. A., Herley, M. E., & Ruprecht. L. J. (1992). Content analysis and methodological critique of articles concerning lesbian and gay male issues in counseling journa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91-99.

Cass, V. C. (1984).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Testing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Sex Research, 20*, 143-167.

Cotten-Huston, A. L., & Waite, B. M. (2000). Anti-Homosexual attitudes in college students: Predictors and classroom interventions. *Journal of Homosexuality, 38*(3), 117-133.

Cuenot, R. G., & Fugita, S. S. (1982). Perceived homosexuality: Measuring heterosexual attitudinal and nonverbal rea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1), 100-106.

Engstrom, C. H., & Sedlaceck, W. (1997). Attitudes of heterosexual students toward their gay male and lesbian peer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8*, 565-576.

Evans, N. J. (2000). Creating a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for gay, lesbian, and bisexual students. In M. B. Baxter Magolda (Ed.), *Teaching to promote intellectual and personal maturity: Incorporating students' worldviews and identity into the learning process* (New Directions for Teaching No. 32, pp. 81-87). San Francisco: Jossey-Bass.

Evans, N. J. (2001).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s in university communities. In A. R. D'Augelli & C. Patterson (Eds.),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ies and youth: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181-19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vans, N. J., & Rankin, S. (1998). Heterosexism and campus violenc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rategies. In A. M. Hoffman, J. H. Schuh, & R. H. Fenske (Eds.), *Violence on campus: Defining the problems, strategies for action*(pp. 169-186). Gaithersburg, MD: Aspen.

Fassinger, R. E. (2000). Applying counseling theories to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Pitfalls and possibilities. In R. M. Perez, K. A., DeBord, & K. J. Bieschke (Eds.), *Handbook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pp. 107-13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Ficarrotto, T. J. (1990). Racism, sexism, and erotophobia: Attitudes of heterosexual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Homosexuality, 19*(1), 111-116.

Fisher, R. D., Derison, D., Polley, C. F., & Cadman, J. (1994). Religiousness, religious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s gays and lesbia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614-630.

Gannon, L. (1999). Homophobia in academia: Examination and critique. In L. Pardie & T. Luchetta (Eds.), *The construction of attitudes toward lesbians, gays and bisexuals* (pp. 43-63). New York: Haworth Press.

Garnets, L., Herek, G. M., & Levy, B. (1992). Violence and victimization of lesbians and gay men: Mental health consequences. In Herek, G., M., & Kevin, T. Berrill (Eds.), *Hate crimes: Confronting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pp. 207-223). Newsbury Park, CA: Sage.

Green, S., Dixon, P., & Gold-Neil, D. (1993). The effects of a gay/lesbian panel discussion on college student attitudes toward gay men, lesbians, and persons with AIDS (PWAs).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19*(1), 47-63.

Haddock, G., & Zanna, M. P. (1998). Authoritarianism, values, and the favorability and structure of antigay attitudes. In G. M. Herek (Ed.), *Stigma and sexual orientation: Understanding prejudice against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pp. 82-107). Thousand Oaks, CA: Sage.

Heppner, P. P., Casas, J. M., Carter, J., & Stone, G. L. (2000). The maturation of counseling psychology: Multifaceted perspectives, 1978-1998.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3-49). New York: Wiley.

Herek, G. M. (1988).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Correlate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ex Research, 25*, 451-477.

Herek, G. M. (1994). Assessing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with the ATLG scale. In B. Greene & G. M. Herek (Eds.), *Lesbian and gay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206-228). Thousand Oaks, CA: Sage.

Herek, G. M. (1995). Psychological heterosexism in the United States. In A. R. D'Augelli & C. J. Patterson (Eds.),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ies over the lifespan* (pp. 321-326). New York: Oxford Press.

Herek, G. M., & Capitanio, J. P. (1996). "Some of my best friends...:" Intergroup contact, concealable stigma,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412-424.

Herek, G. M., & Glunt, E. K. (1991). AIDS-related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Sex Research, 28*, 99-123.

Herek, G. M., & Glunt, E. K. (1993a). Public reactions to AIDS in the United States. In J. B. Pryor & G. D. Reeder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IV infection* (pp.229-261).

Hillsdale, NJ: Erlbaum.

Herek, G. M., & Glunt, E. K. (1993b). Interpersonal contact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ex Research, 30*, 239-244.

Hogan, T. L., & Rentz, A. L. (1996). Homophobia in the academ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7*, 309-314.

Kirkpatrick, L. A. (1994). Fundamentalism, Christian orthodoxy, and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s predictors of discriminatory attitud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2*, 256-268.

Klassen, A. D., Williams, C. J., & Levitt, E. E. (1989). *Sex and morality in the U. S.: An empirical inquiry under the auspices of the Kinsey Institute*.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Lance, L. M. (1987). The effects of interaction with gay persons on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Human Relations, 40*, 329-335.

Liddle, B. J. (1999). Recent improvement in mental health services to lesbian and gay clients. *Journal of Homosexuality, 37*(4), 127-137.

Meyer, I. H. (1995). Minority stress and mental health in gay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38-56.

Mohr, J. J., & Rochlen, A. B. (1999). Measuring attitudes regarding bisexuality in lesbian, gay male, and heterosexual popul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53-369.

Mohr., J. J., & Sedlacek, W. E. (2000). Perceived barriers to friendship with lesbians and gay me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1*, 70-79.

Morin, S. F. (1977). Heterosexual bias in psychological research on lesbianism and male homosexuality. *American Psychologist, 32*, 629-637.

Oliver, M. B., & Hyde, J. S. (1993). Gender differences in sexua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29-51.

Patton, W., & Morrison, M. (1993). Effects of a university subject on attitudes toward human sexuality.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19*(2), 93-107.

Patton, W., & Morrison, M. (1994). Investigating attitudes towards sexuality: Two methodologies.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20*(3), 185-197.

Pedersen, P. (1991). Multiculturalism as a generic approach to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6-12.

Phillips, J. C., Ingram, K. M., Smith, N. G., & Mindes, E. J. (2003). Methodological and content review of lesbian-, gay-, and bisexual-related articles in counseling journals: 1990-1999.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1), 25-62.

Ponterotto, J. G. (1986).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 98-104.

Rankin, S. (2003). *Campus climate for gay,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A national perspective*.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Washington, DC.

Rhoads, R. A. (1995), Learning from the coming-

out experiences of college mal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 67-74.

Sanlo, R. L. (Ed.) (1998). *Working with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llege students: A handbook for faculty ad administr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Schneider, M. (1989). Parental acceptance, comfortableness with sexual orientation, and self-esteem among gay and lesbian youths: A reflected appraisals model. *Journal of Homosexuality, 17*, 111-130.

Seo, Y. S.(2002). *Culture, personality, and emotional expression in counse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imoni, J. M. (1996). Pathways to prejudice: Predicting students' heterosexist attitudes with demographics, self-esteem, and contact with lesbians and gay 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7*, 68-78.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Singelis, T. M., & Brown, W. J. (1995). Culture, self, and collectivist communication: Linking culture to individual behavio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1*, 354-389.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S.,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 Cultural Research: The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Science, 29*, 240-275.

Stevenson, M. R., & Gajarsky, W. M. (1990). Issues of gender in promoting tolerance for homosexual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3*(2), 155-163.

Waldo, C. R. (1999). Working in a majority context: A structural model of heterosexism as minority stres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218-232.

Wells, J. E. (1991). The effects of homophobia and sexism on heterosexual sexual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17*, 185-195.

Whitley, B. E., Jr. (1999).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26-134.

Yamada, A. M., & Singelis, T. M.(1999). Biculturalism and self-constru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 697-709.

원 고 접 수 일 : 2005. 11.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2. 31
게 재 결 정 일 : 2006. 2. 2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6, Vol. 18, No. 1, 177-199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Religiosity, Authoritarianism, and Cultural Values on Korean College Students' Homophobia

Young-Seok Seo Jung-lim Lee Juh-wan Cha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psychosocial variables in predicting heterosexuals' reactions to homosexual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N = 401) enrolled at six universities in four different areas participated in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heterosexual males expressed more hostile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when they had high levels of explicit religiosity and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On the contrary, for heterosexual females, their homophobic attitudes were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authoritarianism, implicit religiosity,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and a low level of explicit religiosity. Implications for counseling training and area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homophobia, gender role attitudes, religiosity, authoritarianism, cultural values